

『한중록(閑中錄)』과
The Memoirs of Lady Hyegyŏng 비교 연구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김 영 신
(안양대)

1. 서론

번역 행위는 원문(Source Text, ST)과 번역문(Target Text, TT)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약을 넘어 이루어지는 창작행위이자 커뮤니케이션행위이다. 먼저 번역 행위가 공간적 제약을 넘는 행위라 함은 번역 과정에서 한 문화권에서 쓰인 텍스트를 다른 문화권에 이식하는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번역사는 상이한 언어 사이의 중재뿐만 아니라 문화적 중재를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제안되었다(박진임 2004; 봉준수 & 권석우 2004). 반면 번역이 시간의 경계를 넘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원문의 생성시기와 번역문의 생성시기 사이에 필연적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두 텍스트 사이에 시차가 클수록

번역자의 개입은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classics)¹⁾의 번역은 공간의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계까지 넘는 행위라는 점에서 예외없이 번역자에게는 이중의 부담(double burden)으로 작용하게 된다.

텍스트의 생산자로서 번역자가 안게 되는 부담이 이와 같다면, 텍스트의 소비자인 독자 혹은 번역 비평가들은 주로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번역문을 평가하게 되는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번역 비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두 잣대로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faithfulness)과 번역문의 가독성(readability)이 있다(번역평가사업단 2005).²⁾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잣대는 서로 독립적인 판단 근거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하는 관계, 때에 따라서는 충분히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이며 원문의 장르와 번역 목적에 따라 각각의 잣대가 갖는 가중치도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장르의 번역의 경우, 번역평가사업단은(이들은 영한 번역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였다) 충실성이라는 기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이상원 2008 151).

그렇다면 문학작품 중에서도 고전 번역의 경우, 그것도 영어권 독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고전을 영역할 경우 번역자는 충실성과 가독성 중에 어느 잣대에 더 큰 무게를 두게 될까?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연구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시대 궁중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손꼽히는 『한중록(閑中錄)』과 『한중록(閑中錄)』의 영역본 *The Memoirs of Lady Hyegy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 Century Korea*를 비교 연구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는 번역과정에서 술하게 직

-
- 1) 조동일은 고전이란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 모범이 되는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정의한다(조동일 2007 1).
 - 2) 번역평가사업단은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번역평가사업단 2005 21).

충실성(faithfulness):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가독성(readability):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낯선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번역사가 어떤 전략을 채택하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아울러 사용된 번역전략이 총체적으로 충실성과 가독성 중 어느 기준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채택되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한중록』의 서사적 특징인 궁중 언어의 번역 양상과 저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적 장치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본 논문은 다시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잣대로의 논의로 회귀하여 번역문 전체를 관통하는 번역전략의 양상을 포착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2.1. 『한중록(閑中錄)』

『한중록』은 사도세자의 비(妃)이며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되는 정조의 모친인 혜경궁 홍씨의 작품으로 『계축일기』, 『인현왕후전』과 함께 우리나라 궁중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조, 정조, 순조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역사에 대한 핵심 목격자이자 중심인물인 혜경궁 홍씨가 직접 쓴 삶의 기록물이다.

사실 『한중록』은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 작품이 아니라, 하나는 친정 조카(홍수영)의 부탁으로 조카에게 주려고 쓴 친정 중심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순조에게 임오화변(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아사한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이 사건과 연루되어 궁지에 몰렸던 친정의 누명을 벗기고자 하는 호소문이다.

모두 4편으로 구성된 『한중록』은 대략 두 시기에 걸쳐서 작성되었다. 첫 시기는 혜경궁이 환갑을 맞이한 1795년(정조 19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혜경궁은 조카의 부탁으로 자신의 지난날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한중록』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제 1편에 해당된다. 두 번째 시기는 1801년(순조 1년)에서 1805년(순조 5년) 사이이다. 이 시기 혜경궁은 남편의 죽음, 친정의 몰락, 아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을 회고하며 자신의 가문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내용을 알리고자 제 2편, 제 3편, 제 4편을 쓰게 된다.

표 1) 『한중록』 각 편의 내용, 저술연도, 대상독자

편차	내용	저술연도	대상독자
제 1편	작자의 회갑때 친정조카 홍수영의 요청에 따라 써 준 글	1795	조카 홍수영
제 2편	정조 승하 직후, 동생의 사사 및 부친의 역적 누명에 충격을 받고 쓴 글	1801	손자 순조
제 3편	친정의 복권을 순조에게 호소하는 글	1802	손자 순조
제 4편	임오화변의 진상을 폭로하는 글	1805	손자 순조

(서경희, 2001 142)

『한중록』은 우리 문학사에서 작자와 창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소수의 작품 중 하나로서, 혜경궁 홍씨의 일생을 유려한 한글로 묘사한 파란만장한 일대기(一代記)로 손꼽히고 있다(주형애 1997). 『한중록』의 서사 스타일은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여 우아하고 품위있는 목소리로 글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궁중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만 가능한 고어와 우아한 궁중 용어가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어 특수어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를 받고 있다(정은임 2001 13).

사실 『한중록』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이본(異本)이 전해 오고 있는데, 본 논문은 번역전략과 현상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에 관한 소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의 ST로는 정은임 교주³⁾의 『한중록』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2.2. 『한중록』 영역본

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나라의 문학 작품은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고전은 국가의 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고전의 번역 현황을 고찰해 보면 상황은 이렇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전의 외국어 번역이 미진한데다 이미 번역된 작품마저 영어 문장력이 빈약하다는 비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 ‘교주’란 문장을 교정하여 주석을 더한다는 뜻을 밝힌다.

(이유식, 2000; 최영호, 2007). 고전의 번역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양과 질의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고전의 번역 사례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본 논문은 『한중록』의 영역본에서 그 사례를 발견한다. 『한중록』은 일단 3종의 영어 번역본이 존재하는 만큼 양적인 면에서 과히 모자라지 않는 관심을 받았고, 3종의 영역본 모두 질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3종의 번역본 중 최초로 출판된 것은 *Han Joong Nok: Reminiscences in Retirement by Crown Princess Hong*으로 브루스 그랜트(Bruce K. Grant)와 김진만의 공동 번역에 의해 1980년 출간되었다. 두 번째는 최양희가 *Memoirs of a Korean Queen*이란 제목으로 1985년 출판하였는데, 이 영역본은 다시 불어로 번역되어 1996년 출판되었다. 이중번역(二重翻譯) 과정으로 인해 불어 번역본은 원문의 느낌과 어감에서 떨어진 묘사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진명 2007 84). 마지막 하나가 바로 본 연구의 데이터로 쓰인 *The Memoirs of Lady Hyegyö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 Century Korea*(이하 *The Memoirs*로 표기)로서 김자현 하부시⁴⁾에 의해 번역되어 1996년 출판되었다. *The Memoirs*는 이후 영국 작가 마거릿 드래블(Margaret Drabble)에 의해 *The Red Queen*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손태수 2009 249).

위의 3종의 번역본 중에서 *The Memoirs*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번역본이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학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원문에 대한 충실성, 우아한 문체, 격조 높은 어휘 사용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최영호 2007). *The Memoirs*의 번역자는 장장 1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한중록』을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 빠른 시간 내에 번역서를 내기 위해 여러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번역물의 품질저하라는 결과가 비일비재한 점을 고려한다면, *The Memoirs*는 오랜 기간에 걸친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김영신 2009 39).⁵⁾

4) 번역자 김자현 하부시(Jahyun Kim Haboush)는 현재 콜롬비아대 역사학과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본 논문의 자료로 쓰인 역사외에도 *A Heritage of Kings: One Man's Monarchy in the Confucian World*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5) 번역자는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서 번역과정이 길었다고 소회하고 있다(김자

3. 번역전략

3.1. 가독성을 위한 전략

다른 2종의 번역서와는 달리 *The Memoirs*의 역자는 단순히 번역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데, 이것은 그 자신이 한국학의 전문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이해가 그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위치를 추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번역자는 수십 쪽에 달하는 서문, 역자후기, 그림과 사진 등을 따로 두어 『한중록』의 저자, 서사적 특징 및 장르적 특징, 4개의 각 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와 사건,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를 두고 있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본문에서는 각주와 미주의 형식을 빌려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전략은 모두 TT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각주나 미주와 같은 전략은 논외로 하기로 하고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독성 제고 전략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3.1.1. 문장의 길이

*The Memoirs*의 저자는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텍스트 전편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ST가 한국의 고전으로서 TT와의 사이에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거리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번역사의 개입 없이는 TT 독자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번역사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문은 가장 가시적인 가독성 제고 전략의 증거를 서사의 길이, 즉 문장의 길이에서 찾는다. 『한중록』은 장문(長文)을 구사하고 있는데, 서경희는 『한중록』의 만연체적인 서사 방식에 대해 당대 글쓰기 방식이라고 제안하면서 “한없이 길게 풀어 놓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작가의 한이 긴 발화 단위로 형상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서경희 2001 148). 다음의 예를 보자.

현, 1996 xi).

(1)

[ST] 명운이 험훈하고 경력이 무궁하여 만고 소무지통을 지낸 밖에 역만 가지 창상을 다 겪고, 살음직하지 아니하되 선왕의 지성지효로 차마 명을 결치 못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니, (171)

[TT] During that period my life has been extremely turbulent./ I have encountered countless adversities./ In addition to that incomparably painful event, I have suffered such an endless succession of devastating trials and tribulations that it is not logical that I should have lived./ I sustained my life because, given the fact the late King served me with utmost filial devotion, I could not bear to end my life./ (197)

위의 ST는 자신이 간신히 기른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으나 정조 24년 갑작스레 사망하고 난 후 비참한 심경을 읊은 부분이다. ST의 경우 아직 끝나지 않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만연체의 서사 양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TT는 4개의 독립된 문장으로 엮여져 있다. 또한 TT의 각 문장에는 ‘I’, ‘my’, ‘me’와 같은 인칭대명사(personal pronouns)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ST의 장황하리만큼 긴 서사는 주로 상황묘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반해, TT의 경우 여러 개의 단문과 1인칭 대명사의 사용으로 인해 서사의 1인칭 시점(point of view)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발화단위의 축소는 *The Memoirs* 전편을 지배하는 번역전략이다. TT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번역자는 문장의 길이를 짧게 나누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의 예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ST] 이십일 신시쯤 폭우가 내리고 뇌성도 하니 뇌성 두려워하시던 일이 나 어찌 되오시고 차마차마 그 형용을 헤아리지 못하니, 내마음이 절곡아사도 하고자 하고 깊은 물에도 들고 싶고 수건을 어루만지며 칼도 들기를 자주 하되 약하여 강한 결단을 못하나 먹을 길이 없어 냉수나 미음이나 먹은 일이 없되 능히 지탱하여 엽일 밤에 하릴없이 계시다 하니 비오던 때가 수진하시던 때런가 싶으니 차마차마 어찌 견디어 그 지경이 되오시고. (304)

[TT] On the twentieth, at about four o'clock in the afternoon, there was a torrential rain with much thunder./ The thought of the Prince's terror of thunder made me so restless./ I just could not bear to imagine it./ All through this period, I thought constantly of death./ I wished to die of starvation;/ I imagined jumping into deep water;/ I handled towels;/ and I frequently grabbed knives./ Because of my weakness, I could not bring myself to complete the final act/ But I could not eat at all;/ I could not drink water or eat wet gruel./ The Prince was reported to have responded until the storm, so it must be that he died during the rain./ Oh, how did he bear up and meet that end? (325)

(2)의 예문은 자신의 남편 사도세자가 영조의 명으로 뒤주로 갇힌 후 표현할 길 없이 비통한 자신의 심경을 그린 부분이다. 위의 예문 (1)과 마찬가지로 ST의 경우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TT의 경우 12개의 문장으로 분절이 되어 있으며 물음표(?)와 세미콜론(;) 등의 문장기호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행위자(agent)가 주어(subject)로 격상된 문장구성을 통해 독해의 편의가 제고되었다.

3.1.2. 비유법

TT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은 원천문화에 존재하지 않는 비유법의 첨가를 허용하기도 하고, 외연화(explicitation) 전략을 통해 원문의 수사적 표현들이 명시적으로 서술되도록 하기도 한다.

(3)

[ST] 정처가 비록 인물이 괴이하여 천태만상이나 실은 한 부녀라, 궐내에서 상없는 것이나 하지 후검 곧 아니면 조정에 간섭하여 권쓸 의사가 어찌 내었으리오. (128)

[TT] Although Madame Chong was wicked and as changeable as a chameleon, she was still but a woman. Had it not been for Hугyom, she would have remained content to meddle in the affairs

of the inner palace, thinking it impossible to interfere in the politics of the court and to wield power. (153)

(3)의 ST에서는 자신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화완옹주)의 성격에 대해 ‘천태만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TT에서는 ‘as changeable as a chameleon’으로 번역이 되었다.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사실 원문의 저자가 살았던 시공간에서는 알려지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던 동물이었지만, 현대 영미권 독자들에게는 지극히 친숙한 동물로서 주로 변신에 능한 존재,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중성이나 표리부동을 서슴지 않는 존재 등의 부정적인 의미연상을 불러오는 표현이다. 번역자는 원천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번역 문화권에서는 친숙한 의미연상을 도입하는 자국화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다.

(4)

[ST] 그 때 중궁전계와 선희궁이시며 옹주더러 “별궁 길이 창덕궁을 지나니 원에 여쭙지 않고 자하로 데려가기 황공하오나 아마 뵈옵겠압나이다.” 하니 의논이 구일하거늘 (288)

[TT] I discussed the matter with the Queen, with Lady Sŏnhŭi, and Princess Hwawan. I suggested, "Since Ch'angdŏk Palace is on the way to the bride's pavilion, it would be possible to take her with me unnoticed. Of course, it is improper to do this on my own without receiving His Majesty's permission. But I would really like to have His Highness meet his daughter-in-law." (308)

상기 예문의 ST에서 ‘위’는 왕(영조)을 일컫는 환유적인 표현이다. 이것이 TT에서는 ‘Your Majesty’라는 호칭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래’일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자하(自下)의 ‘자’는 ‘~에서, ~으로부터’의 뜻이지만 아예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니, ‘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혜경궁 자신을 가리킨다. TT에서는 인칭대명사(me)로 번역이 되었다. 정보의 외연화를 통한 가독성의 제고라는 큰 맥락에서 이루어진 번역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3. 문화소의 번역

번역학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언어내적인 문제(intralinguistic problems)와 언어외적인 문제(extralinguistic problems)로 구분이 가능하다. 언어내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용어(idioms), 동음이의어(puns), 언어유희(word play) 등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언어외적인 문제는 자연물에서 사회적 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다룬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화소중에서도 언어외적인 요소의 번역양상을 분석한다.⁶⁾

*The Memoirs*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문화소가 존재한다. 이들 문화소 중에는 사실 오늘날의 한국어 독자에게도 낯설거나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원문이 고전인 까닭에 현대 독자에게는 시간상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TT 독자들이 겪게 될 이해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따라서 번역사의 개입도 더욱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The Memoirs*의 번역자는 일단 풍부한 각주와 미주, 해설, 사진과 그림⁷⁾의 첨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친절한 번역은 『한중록』의 장르적 특징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한중록』은 문학작품인 동시에 역사기록이다.⁸⁾ 따라서 번역자는 역사기록의 성격을 충분히 담고 있는 『한중록』의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배경, 역사적 사실, 궁중 관습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서는, 혹은 때에 따라 원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서는 TT 독자들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6) 본 논문은 김효중의 정의에 따라 문화소를 “문화와 관련된 요인 및 특성으로 어느 특정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 언어적 요인 및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져 있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로 정의한다(김효중 2004 37).

7) 사실 현대 젊은 층 독자에게 사도세자가 간혀 죽은 ‘뒤주’라는 물건도 낯설 수 있을 것이다. 번역자는 책의 중간에 뒤주(rice chest) 사진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8) 『한중록』의 장르론에 대해 살펴보자면, 이병기는 이를 소설로 보았던 반면, 김용숙은 “궁중실기문학”으로 정의하였다. 김용숙은 “실기라 함은 사실의 기록이란 뜻이며, 실기문학이란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 문학”이라고 규정하였다(김용숙 1982 393).

(5)

[ST] 그 해 십월에 홍역이 대치하여 옹주가 먼저 하니 경모궁께서는 양접함으로 피우하시오고, 원손은 낙선당으로 옮기니 탄생한 삼칠 안에 움직이나 석대하셔 먼데로 옮겨가기 염려롭지 아니하고, (244)

[TT] In the tenth month of that year, an epidemic of measles broke out. Princess Hwahyöp was the first to come down with it. Prince Sado was evacuated to Yangjŏng House, and the infant Prince was removed to Naksŏn Hall. He was only several weeks old, but because he was so strong we were not nervous about moving him a considerable distance. (262-63)

예문 (5)의 ‘삼칠’은 한국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적으로 삼칠일은 유아가 면역력을 가지기까지 외부 접근이나 바깥의 출입을 삼갔던 시간이다.⁹⁾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은 유아를 옮겨야 하는 불가피성에 대한 저자의 우려가 ‘삼칠 안에’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TT에서는 ‘only several weeks old’라는 표현으로 서술되어 전이되었다.

(6)

[ST] 제 옹주네 중 화순은 온공하시고, 화평은 유순하셔 날 대접함이 지극하고 아래로 두 소고는 연기 서로 같고 귀한 아기네로 놀음하는 것이 다 갖되 내 따라 놀지 아니하고, (44)

[TT] There were older princesses Hwasun, who was warm and mild-mannered, and Hwap’öng, who was very gentle and particularly kind to me. Here were two more princesses, Hwahyöp and Hwawan, who were more or less my age. They were still young and so played a lot, though I did not join in. (73)

상기 예문은 저자 혜경궁이 입궁한 후 처음 만나게 된 4명의 옹주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위의 예문에서 먼저 논의할 부분은 ‘옹주’라는 표현의 번역이다. ST 문화권의 독자는 ‘옹주’라는 호칭은 왕비의 딸이 아니라 후궁의 딸을 일컫는 표현으로 ‘공주’와는 신분이나 서열상의 격차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9) 삼국유사에서는 옹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마늘과 쑥만 먹고 지낸 기간이 삼칠일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TT 문화권에서는 이를 구별하는 개별 단어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사는 공주와 옹주, 왕자비를 뭉뚱그리는 상위어 ‘princess’를 사용하여 의미전달을 모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위어 사용 전략은 문화소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도훈 2006; Alexa 1996).

상위어를 이용한 문화소의 번역이외에도 위의 예문에서는 화순 옹주와 화평 옹주가 저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정보와 다른 두 옹주의 이름이 화협과 화완이라는 정보가 부가적으로 제공되어 있다. 원저자(혜경궁)가 의도한 원문독자(자신의 손자와 조카)는 이들 옹주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로서는 옹주에 대한 최초 언급 부분에서 이들에 대한 이름과 연령 등 기본적인 정보를 (원문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TT 독자들의 책읽기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2. 궁중어의 번역전략

아래의 절에서 살펴 볼 문제는 『한중록』의 표현적 특징이자 『한중록』의 아름다움의 기여요소로 손꼽히는 궁중어를 살펴보고 이들 궁중어가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김용숙은 궁중어를 “왕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생활권, 이른바 내정에서 쓰여지는 말”로 정의하면서 궁중어는 은어적 성향이 짙고, 외래어 계통이 섞여 있으며 한자어계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라진 옛말들이 많고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큰 특징이다(김용숙 1994 119-21). 본 논문에서는 한자어를 포함한 경어적 표현과 우회적 표현에 한정하여 궁중어의 번역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3.2.1. 경어적 표현

먼저 한자어계의 궁중어는 은어적이라기보다는 왕에 대한 외경의식과 함께 일반어와는 다른 “특권의식과 우월감”을 표시하는 언어이다(김홍석 2007 394).

(7)

a. [ST] 인원왕후 이부(耳部)가 어두오셔 잘못 듣자오시고 “그리하라.” 대답하시오니 (245)

[TT] She was hard-of-hearing and so, misunderstanding what the King had said, she replied, "Do as you wish." (263)

b. [ST] 미처 보모도 정치 못하여 노궁인과 내 아지를 맡겨 보내고 (244)

[TT] I had not yet had time to select a nurse for him, and so I left him in the care of an elderly lady-in-waiting and my wet nurse. (262-63)

(7a)는 저자의 시할머니인 인원왕후가 노후에 귀가 어두웠던 점을 언급한 부분이다. 저자는 ‘귀’를 가리키는 한자어인 ‘이부(耳部)’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할머니에 대한 공경심을 표현하고 있다. (7b)의 ‘아지(阿之)’는 유모의 궁중어이다. 이들 궁중어들이 TT에서는 모두 일반어로 번역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8)

a. [ST] 동궁께오서 호천벽용 하오심이 과하오시고, 때때 봉심하오시고 부르짖어 우시면 안수가 줄줄 하오시니 친행 모자간이오신들 이밖 더하오시리오. (258)

[TT] Prince Sado was plunged into grief. He called upon Heaven, he heaved and sobbed; his whole body shook with grief. He wailed constantly, calling the Queen as tears streamed continually down his face. (276)

b. [ST] 사기 생각과 다르오셔, 나더러 하시되 “아마도 괴이하니 자네는 좋이 살게 하였네. 그 뜻들이 무서워,” 하시기, 내 눈물을 드리워 말없이 허황하여 손을 비비고 앉았더니, (299)

[TT] Contrary to my anticipation, the Prince said calmly "It looks very bad, but they will let you live. Oh, how I fear their intentions." In deep consternation, I sat there silently, just rubbing my hands together while tears rolled down my face. (320)

(8a)의 ‘안수(眼水)’는 눈물의 높임말이다. (8a)의 경우 저자는 남편인 사도세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는 ‘안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8b)에서 자신이 눈물을 흘린 것을 두고는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에 존대와 자신의 겸양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상이한 단어가 원문에서는 ‘tears’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

궁중어의 특징은 한자어계의 단어뿐만 아니라 극존체 어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용숙은 한중록의 아름다움은 전아(典雅)한 문체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히 극존체의 어미(-오, -옵)가 한중록의 전아미를 더하고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김용숙 1994 137).

(9)

a. [ST] 당신 소년 마음에 외조 귀하여 하오시던 마음이 변하시고 어미께 야 어떠하실 것 아니로되 어이 전일 무간하던 마음이 변치 않으리오 (123)

[TT] He no longer held his maternal grandfather in high esteem and affection, and, although it did not go that far with me, he was no longer as open as he had been. (148)

b. [ST] 영묘 유시에 어(御)하오시던 감토에 칠보 얹힌 것이 있어 쓰오시 게 하니 이도 사치라 아오시고 아니 쓰시고 (224)

[TT] Once, given a cap studded with seven kinds of jewels, one that His Late Majesty had worn in childhood, he thought it too luxurious and declined to wear it. (244)

위 예문을 보면 ‘-오’라는 보조어미가 동원되어 길고 우아한 궁중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9a)는 자신의 아들(정조)에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화완옹주의 계책으로 인해 정조가 외할아버지(혜경궁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다. (9b)는 시아버지인 영조와 남편(사도세자)에 대한 부분이다.

두 인용문을 보면 저자는 시아버지나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극존체 보조어미 ‘-오’를 사용하고 있는데, (9a)와 (9b)의 TT에서는 이와 같은 경어적 용법이 사라진 것이 확인된다. 이는 경어체가 발달하지 않은

영어에서는 전달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TT의 경우 존재어가 작품 전반에 끼치는 텍스트상의 느낌은 안타깝지만 소실되게 되었다.

3.2.2. 우회적 표현

한중록의 언어적 아름다움은 직설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10)

[ST] 추동간은 가례하오신 후 성심이 자연 한가치 못 하오셔 일이 적으시며 겨우 그 해를 보내고, 경진을 당하니 그 해는 병환이 더 침독하시고 대조께서 또 책망하심이 일일 심하시니, (275)

[TT] That autumn and winter His Majesty was preoccupied with his private life, as was natural for a newly wed man. This left him with little time to check on the Prince's coming and goings. The year ended. (293)

66세의 영조는 15세의 후비를 맞이하게 된다. ST에서는 혼인 후 영조의 일상을 ‘성심이 한가치 못하여’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신혼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TT에서는 신혼이라 자신의 사생활에 몰두해 있다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는 ST와 비교한다면 한층 직설적인 표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11)

[ST] 모년 모월 일을 내 어찌 차마 말하리오, 천지 합벽하고 일월이 회색하는 변을 만나 내 어찌 차마 일시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오. 칼을 들어 명을 결하려 하더니 방인의 앓음으로 인하여 뜻같이 못하고 돌아 생각하니 십일세 세손에게 첩첩한 지통을 끼치지 못하겠고, (63)

[TT] On the thirteenth day, Heaven and Earth clashed and the sun and the moon turned black. When this calamity happened, how could I desire to live even one second longer! I rushed to stab myself, but those around me took the knife from my hand. Then I thought of

my son. To inflict further pain on the ten-year-old Grand Heir seemed unbearably cruel. (85)

ST ‘모년 모월 일’은 영조 38년 5월 13일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참변(임오화변)을 가리킨다. 작자는 이 참변을 ‘모년 모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차마 망극해서 다시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기억에 대한 작자의 심경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모년 모월 일’을 번역자는 ‘on the thirteenth day’라는 표현을 통해 임오참변이 발생한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한편, 각주의 양식을 이용하여 이날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부연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모년 모월 일’이라는 표현을 통한 ST 저자의 절박함을 번역문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12)

[ST] 십오일은 굳게굳게 하고 깊이깊이 하여 농사오시고, 상궐(上闕) 오르신다 하니 하릴없는지라. (304)

[TT] On the fifteenth, His Majesty had [the rice chest] bound very tightly [with rope], covered deeply [with grass], and moved to the upper palace. All hope was lost. (324)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후 이틀 뒤 영조는 뒤주의 틈을 막고 뒤주 좌우로 풀을 쌓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은 참혹한 정경이 ST에서는 상당히 간접적으로 ‘굳게굳게 하고 깊이깊이 하여’라고 표현이 된 반면, TT에서는 임오화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을 배려하여 번역자는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¹⁰⁾

3.3. 감정의 노출과 번역

위에서 『한중록』은 우회적 표현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동시에 저자는 주요 인물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을 상당히 노출시키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10) 김현주는 『한중록』의 이와 같은 은근하고 유화적인 표현에 대해 가부장제도의 권력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글쓰기를 해야만 하는 여성주의적 글쓰기로 분석하면서 이를 “억압된 가려짐”으로 정의하고 있다(김현주 2000 91).

자신의 정적(政敵)인 화완옹주와 그녀의 주위 인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고찰한다.

(13)

[ST] 본디 정처를 화평옹주 버금으로 사랑하시더니, (111)

[TT] He had always loved Princess Hwawan, that is Madame Chöng, next to Princess Hwap'yöng. (138)

혜경궁은 화완 옹주를 ‘정치달의 처’라는 의미로 ‘정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존대가 아닌 하대의 표현이다(서경희 2001 150). ‘정처’라는 표현은 TT에서 ‘Madame Chöng’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원문의 저자가 노출하고 있는 감정의 강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화완 옹주는 ‘정처’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원문 곳곳에서 다른 옹주들과는 달리 존칭 어미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칭에 있어서도 하대에 가까운 표현이 동원되고 있다.

아래의 (14a)는 화평 옹주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이고 (14b)와 (14c)는 화완 옹주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인데, 이들에 대한 저자의 호/불호의 감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14)

a. [ST] 화평옹주는 선희궁 처음 따님으로 영묘께오서 자애 자별하시시고 그 옹주가 성행이 온화 유순하여 조금도 교오한 습이 없고, 당신 만 자애 받잡고 동궁께서는 없아오신 일 스스로 불안하고 민망하여 매양 “그리마오서.” 간하옵고, (111)

[TT] Princess Hwap'yöng was Lady Sönhüi's first daughter and His Majesty's loved her above all his other children. Of a mild and kindly disposition, the Princess showed not the slightest trace of arrogance. Uncomfortable and distressed that she alone was showered with paternal affection while her brother, the Crown Prince, was not, the Princess pleaded ceaselessly with her father, "Please do not be like that." (137)

b. [ST] 대저 그 사람의 성품이 여편네 중 호승과 시기와 새움과 권 좋아 하기가 유별하여 온갖 일이 다 났으니 (113)

[TT] Madame Chông was of a rather exceptional disposition for a woman. She was fiercely competitive, jealous, envious, and very fond of power. (138)

c. [ST] 내가 세손 어민 줄 미워 제가 어미 노릇을 하려하고 (113)

[TT] Wishing to act as his mother, she did not like the fact that I was the Grand Heir's mother. (138)

혜경궁은 화평옹주의 성품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일단 ‘화평옹주’, ‘당신’으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보조어미 -오-가 사용되어 존대의 마음이 더욱 강력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14b)와 (14c)는 화완옹주에 관한 내용으로서, 화완옹주는 ‘그 사람’, ‘제’라고 지칭되어 있으며 존대체 보조어미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거리두기와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시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T를 보면 ‘Madame Chông’, ‘she’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자의 감정이 중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면에서 “충실성”이라는 잣대에서 떨어진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본 논문은 『한중록』과 한중록의 영역본 *The Memoirs*의 비교 연구를 통해 번역 비평의 2가지 잣대인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데이터 분석결과 *The Memoirs*의 번역자는 서사구조나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충실성보다는 가독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먼저 원문의 만연체적인 서사양식이 번역문에서는 여러 개의 단문으로 분절되었으며 다양한 문장부호의 사용 등으로 번역문의 독자에게 익숙한 글쓰기 방식이 시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번역자의 노력은 원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유법의 첨가나 명시화 전략 등을 통

해서도 발현되었다. 문화소의 번역에 있어서도 상위어로의 대체 등 낮은 문화를 노출시키기보다는 “낮설음”을 조절하는 전략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한중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어의 번역 양상이었다. 원문의 저자는 거의 평생을 궁중에서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그녀의 작품은 다양한 궁중어를 내포하고 있고, 이들 궁중어는 『한중록』의 아름다움을 더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데이터 분석결과 이들 궁중어들이 대부분 번역문에서는 일반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환은 번역자가 번역문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취한 전략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궁중어의 번역과 관련된 질문으로서, 영어에서도 궁중어라고 범주화할 수 있는 단어와 표현 양식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수행할 연구 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본 논문은 번역자가 TT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제 전략들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와 같은 가독성 제고 전략을 통해 결국 *The Memoirs*는 번역서의 수준을 넘어 TT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충실한” 소개서이자 해설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The Memoirs*의 경우, 가독성이 제고된 번역서는 충실한 해설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1, 31-51.
- 김용숙. 1982. 「왕조사회와 실기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 _____. 1994. 「궁중어의 아름다움 -<한중록>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226, 119-45.
- 김영신. 2009. 「다빈치코드 오역사례 연구를 통한 출판번역 시장 문제」, 『통역과 번역』, 11:1, 27-41.
- 김현주. 2006. 『<한중록>의 의미구조와 글쓰기 양상: 페미니즘 비평을 중심으로

로』. 상지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홍석. 2007. 「국어사전에 실린 궁중어 연구」, 『새국어교육』, 76, 393-418.
-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번역학연구』, 5:1, 98-109.
- 봉준수 & 권석우. 2004.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현황 -통계를 ‘읽는’ 몇 가지 시각」, 『한국 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서경희. 2001. 「한중록의 영태본 <The Memoirs of Lady Hyegyöng>」, 『온지논총』, 7, 137-60.
- 손태수. 2008. 「『한중록』과 『붉은 왕세자빈』에 나타난 문화횡단성 연구: 사도 세자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심층심리학적 고찰」, 『정신문화 연구』, 31:1, 243-69.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상원. 2008. 「문학번역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65.
- 이유식. 2000. 「한국문학 영어권 번역 소개 연구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 169-99.
- 이진명. 2007. 「프랑스의 한국 고전 번역과 연구」, 『제3회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2007 발표집』, 73-96.
- 정은임 교주. 2002. 『한중록』. 서울: 이회.
- 조동일. 2007. 「한국의 고전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제3회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2007 발표집』, 1-19.
- 주형애. 1997.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호. 2007. 「조선시대 자료의 영문번역 현황과 장래의 과제」, 『제3회 계명대학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2007 발표집』, 133-40.
- Alexa, Javier Franco.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R. Alvarez & M.C.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52-78.

<분석텍스트>

ST: 정은임. 2002. 『한중록』. 서울: 이회.

TT: 김재현 · 하부시 옮김. 1996. *The Memoirs of Lady Hyegyö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 Century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Ensuring Readability in the Translation of the Korean Classic
『Hanjungrok』

Kim, Young-Shin
(Anyang University)

Translation by itself is a communicative activity which transcends the dual barriers of time and space between the Source Culture and the Target Culture. This aspect of translation would make the translation of literary classics an even more daunting task. With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one of the Korean's brilliant court literature 『Hanjungrok』 and its English translation *The Memoirs of Lady Hyegy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 Century Korea*(translated by Kim JaHyun Haboush)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translator deals with, bypasses, and overcomes a whole spectrum of problems encountered in the proces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translator of *The Memoirs* seems to have put more weight on readability rather on faithfulness in translating the narrative style and figurative expressions of the ST. First, as to the narrative style, the translator has fragmented lengthy sentences of the ST into multiple short sentences accompanied with various punctuation marks. This strategy represents an effort on part of the translator to pursue a way of writing which is familiar to TT readers, thus ensuring readability of the translation. Secondly, with regard to the translation of rhetorical expressions and culture-specific elements of the ST, the same kinds of efforts were manifested in the TT.

Another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amine how the court language of 『Hanjungrok』, a trait regarded as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of its beauty, was rendered in the T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urt

language and its typical ways of expression have been translated into ordinary language in the TT. The analysis leads us to suggest that the translator has intentionally applied such shift to make the TT more accessible for its readers. The present study concludes with the argument that the aforementioned translation strategies of the TT, which are primarily employed to enhance the “readability” of the TT, make *The Memoirs* go beyond the level of the translation to the level of a “faithful” introduction to Korea's history, tradition and culture.

▶ Key Words: classics, readability, faithfulness, court language, narrative

김영신

안양대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전공 전임강사

shiny@anya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전략, 번역과 문화

논문투고일: 2009년 08월 01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